

광주매일신문 주최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작품 판매전 개막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작품 판매전이 지난 27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

예술적 공감대 확산·네트워크 플랫폼 형성

내달 6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서 14명 작가 140여점 선봬



지역 유명 작가 발굴 및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주매일신문의 작품판매전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개막식이 지난 27일 오후 5시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매일신문은 이번 작품판매전을 시작으로 작가와 컬렉터 간 예술파트너로 역할을 하며 예술적 공감의 폭을 넓히고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참여작가 14명을 비롯해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 지역 미술 애호가 등 총 7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흥윤진 루트머지 대표의 가야금 연주 무대를 시작으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의 인사말, 축사, 참여작가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노회용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 유명 작가들의 열정이 담긴 작품활동을 응원한다"며 "지역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예술가들의 발굴 가능성을 확장하는 등 이들의 미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정지 총영사는 "이번 작품 판매전에 중국 청년 작가 작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이들의 예술 발전 계기가 됐으면 한다. 청년 작가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참여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내비쳤다. 작품을 매개로 한 이날 교류의 장에서 작가들은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은 이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질문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대화를 이어나갔다.

참여작가들 또한 이번 작품판매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상호 작가는 "훌륭한 작가들과 지역사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미술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얼마 뒤 열릴 광주아트페어와 더불어 이번 행사가 지역 작가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해 주신 지역 명사들과 작가들 간 만남이 이번 프로젝트를 더욱 빛내줄 것 같다. 오늘 자리를 통해 작가들이 성장 동력을 얻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잠재된 역량으로 무한 성장하고 있는 실상호·이철규·전현숙·강남규·조강현,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목받는 이정록·박희정·염순영·진하, 청년작가 웨이더원·전정연·이다에·전동민·지니킴 총 14명의 작품 1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여성영화제 '권 단편공모' 본선진출작 12편 공개

11월 CGV광주금남로서 상영

15회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권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 12편을 공개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8월25일까지 접수 결과 올해 단편공모에는 지난해보다 42편 많은 총 456편이 출품됐다.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허다희 감독의 '침방', 이민화 감독의 '백차와 우렁차', 이이다 감독의 '디-데이, 프라이데이', 최범찬 감독

의 '복순씨의 윈데이 클라쓰', 임지선 감독의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심이안 감독의 '빼고', 이경호 감독의 '혼자', 최승현 감독의 '영아의 섬', 김보민 감독의 '육슈슈', 김소하·전도희 감독의 '마이다어', 이은지 감독의 '영원한 유산', 이다솔·김가는 감독의 '굿바이 트라우마 - 너에게 이름을 줄게다'.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이번 영화제 캐치프레이즈인 '카운트 업(COUNT UP)'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들의 다채로운 삶과 죽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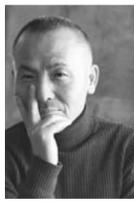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에 주목했다"며 "과거 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 속 여성들이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그 과정에서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단편공모 본선 진출작은 오는 11월 개최하는 15회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에 CGV광주금남로에서 상영된다.

15회 광주여성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술의 달

가운의 케빈스상책



9월은 보고, 듣고, 느끼기 좋은 미술의 달이다. KIA 프·프리즈 서울을 비롯해 광주·부산 비엔날레와 미술관 기획전·갤러리 전시 등 다양한 미술 행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가들인 것 같다.



'미술상책'

예전에는 굳이 해외로 작품을 들고 나가야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와서 보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삼아 국내 작가들의 가치가 더 높아졌으면 한다.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 유치 이후 한국은 '핫한' 미술시장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내 미술품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여전히 '미학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 즐비한 프리즈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발목관절이 아프도록 관람하고 늦은 시각 귀가했지만, 규정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쉬어 잠들 수가 없다. 미술 환경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많은 작가는 항상 가난하다. 그래서 특별히 나쁘고 좋다고 없다.

'미술 생태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미술시장에는 미술관이 좋아하는 작가

와 화랑이 좋아하는 작가가 다르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술적으로 인정 받은 가치를 화랑이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 구매자에게 연결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술관에서는 로컬 미술의 지력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나 일상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싶다.

30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는 수많은 작가의 작품이 광주 전역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유연히 마주하는 행복을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소리와 색'이 만나는 미술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 9월을 풍성한 '미술의 달'로 정하고, 관람객이 이 기간을 만끽하며 자신만의 미술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대안동에서화가강용>

'행복한 동행'

광주국악방송 개국 10주년 음악회 내달 2일 북구문화센터

광주국악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공개음악회를 연다.

다음달 2일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광주국악방송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로컬리즘'을 컨셉으로 광주 및 호남 지역에서 소중히 우리 음악을 계승·보존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회 사회는 광주지역 대표 연극인이자 광주국악방송 대표 프로그램 '남도마실'을 진행하는 지정남 씨가 맡았다. 광주지역 대표 풍류 연주단체 '풍류회 죽순방',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의 보유자인 '윤진철', 우리음악을 새

롭게 창작해 나아가고 있는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뭇, 그리고 광주북구지역 들노래를 복원 연구하고 있는 용전들노래보존회가 출연해 현대적 감각을 더한 화려한 국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문호 광주국악방송 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광주국악방송이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이번 공개음악회를 통해 그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한 동행' 공개음악회는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여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